

# 현실 속 '정년이'... 27일부터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7일간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가야금 병창·판소리 공연 소목장·필장·악기장 선배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정년이'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현실 속 정년이'인 광주 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한다.

23일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의 전통공연을 비롯해 광주시 무형문화유산인 악기장·소목장·필장·음식장 등 기능보유자 11명의 작품 전시 등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인다.

행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서석당에서 예능보유자와 전수자의 전통공연이 열린다.

공연에서는 △남도판소리 보유자인 이순자의 춘향가, 김선이의 흥부가, 최순자의 심청가 △판소리 강산제 보유자인 이임례의 심청가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보유자인 방성춘의 춘향가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문명자·이영애·황승옥의 판소리 및 남도민요 등 남도가락의 향연을 펼친다.

또 11월2일까지 7일간 악기장·소목장·필장 등 기능보유자 11명의 작품이 전통문화관 작품전시관에 전시된다.

광주시 무형문화유산인 △악기장 이준수, 이춘봉의 가야금·거문고·해금 △화류소목장 조기종의 서상·서안 △소목장 양종철의 꽃살창호 △필장 문상호의 전통 문북·향나무 북케이스, 안명환의 진다리 북 △대목장 박영곤의 강릉객사문 △탱화장 송광무의 산신행화 작품 △음식장 최영자의 설·대보름·동지·선달그림 상차림, 이애섭의 발효(장아찌), 민경숙의 의례상차림을 선보인다.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외에도 26일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광주영상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무형유산 공개행사 자료사진. **광주시 제공**

재'가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며, 11월2일 옛 선조들의 가을걷이 들소리를 재현하는 '용전들노래'가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등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의 공개행사가 마련된다.

형광일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무형문화

유산 공개행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은 물론 시민과 소통·이해를 돕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며 "남도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본격화 남구, 관내 21곳 구축 계획

광주 남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교육 다양화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7억원 가량을 투입해 관내 21개 지역아동센터 내에 화상교육 장비 등 학습 보조기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내 구립도서관과 연계해 쌍방향 원격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문화·공연 콘텐츠 제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의 내부 공간을 활용해 스튜디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화상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TV로 구립도서관 및 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화상수업을 원격으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구립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진행 강사가 강의하는 온라인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업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은 학습 실습 보조기기로 원격 개별 학습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시행자와 함께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자 측에서 확보한 문화·공연을 비롯해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면 저비용으로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프로그램 다양화로 서비스 품질까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온·오프라인 학습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 능력 향상으로 디지털 및 학습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주민 재능기부 드림스쿨 운영 서구, 지역주민 학습 수요 충족

광주 서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의 재능기부 사업인 우리 동네 일타강사 네번째 프로그램으로 '세큰대 드림스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기술이 뛰어나거나 다양한 재능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 강사가 돼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서구의 배움나눔 프로젝트다.

이번 드림스쿨은 10년간 밴드 연습실을 운영해 온 박창하 강사가 드림연주의 기초부터 자신만의 노하우까지 전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14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금요일에 위치한 일타강사의 밴드 연습실에서 서구민 1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우리동네 일타강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일타강사 지역주민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팀(062-350-4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아 기자**

북부경찰·동부교육청 치안협의회 북부, 안전한 학교 실현 등 논의

광주북구는 북부경찰·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23일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는 치안 유관기관 간 논의와 협업을 통해 생활안전 대책을 발굴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회의는 문인 북구청장, 김용관 북부경찰서장,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관계자 총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셉테드(CPTED) 사업 활성화 △안심 공동체 활성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 △2025년도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회의를 거쳐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논의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 정기회의를 열어 생활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주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지역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북구는 앞서 지난 9월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북부경찰과 동부교육지원청, 주민 의견을 수렴해 52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력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시민공유 축제와 충장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문화복합거점으로 조성될 '충장 상상큐브 건립 착공식'이 지난 21일 광주 동구 충장로5가에서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왼쪽 7번째) 등 관계자들이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 동구, 문화·관광 새로운 랜드마크 '충장상상큐브' 착공

2026년 상반기 완공 목표

광주 동구가 지난 21일 충장로 5가(59-2번지)에 위치한 신축부지 현장에서 '충장상상큐브'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운영을 목표로 하는 충장상상큐브는 광주의 추억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심 재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상 3층의 규모로 1층 레트로 감성을 살린 추억의 상설 전시관, 2층 MZ세대를 겨냥한 문화복합공간, 3층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와 카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장상상큐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4·5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 대표 축제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자 추억과 레트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MZ세대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동구의 새로운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광산구, 제1회 본량동 주민화합 한마당 개최

25일 더하기센터 운동장에서

광주 광산구 본량동 주민·사회단체 등이 마련한 '제1회 본량동 한마당 축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광산구 더하기센터 운동장에서 열린다.

본량동 한마당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하고, 본량동 주민자치회·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이 다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모듬북 사물놀이로 시작으로 '세브나우어(7hour) 팀'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노래자랑, 가수

초청 공연, 본량초 학생의 소고춤 공연, 행운권 추첨 등을 진행한다.

또 양말 목공예, 연예인 팔찌 만들기 등 체험관과 지역 특산물 판매관을 운영한다.

오화열 본량동 한마당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주도로 처음 여는 한마당 축제가 바쁜 농번기 주민에게 즐겁고 행복한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